

# 넘쳐나는 해양쓰레기에 피조개·새조개가 사라진다

## 해양쓰레기 없는 '전남 블루오션'

### <2> 바다의 변화, 실감하는 어민들

여수 기막만에 자리한 여수 안포 어촌(어촌계장 이희환)은 사시사철 수산물로 풍족한 곳이었다. 피조개를 양식하면서 가끔 새조개 무리가 마을 어장으로 들어왔고, 낙지, 감태, 바지락 등 다양한 수산물로 주민들의 소득도 높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갑자기 바다가 달라졌다. 피조개 폐사율이 증가하고, 새조개는 사라진 것이다. 속수무책이었던 주민들은 마을 해안, 어장을 수시로 청소하고 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최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미래수산연구소와 '안포 어촌의 새

## 전남도, 양식 신기술 전수에 주력 전남어촌센터 지원 '바다가꿈' 전개 해양쓰레기 제로화 목표 달성 주력 매월 셋째주 금요일 연안 정화의 날

도약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미래수산연구소는 해양 및 갯벌조사를 실시한 뒤 우선 안포에 시험어장을 설치해 새조개를 종패 수준(크기 2cm)에서 판매 가능한 수준(8cm)까지 키워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어민들이 어려워하는 양식 신기술도 집중적으

로 전수할 방침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해양쓰레기 등에 의해 바다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전남 어민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변 청소와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무심했던 삶의 터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힘을 모은 것이다. 우수 어촌들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외부 기관·단체와 함께 '바다가꿈' 행사도 진행 중이다. '바다가꿈'이란 어민과 외지인이 함께 쓰레기, 어구 등으로 지저분한 어촌 해변을 가꾸고, 간단한 공간을 마련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어민과 외지인이 지속적으로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말한다.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와 보성 석간마을(어촌

계장 오숙자)은 지난 2018년 1사1촌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석간마을 앞 해변을 청소하고, 외지인들이 찾기 쉽게 길을 정비하고 있다. 득량만에 자리한 석간마을은 30ha에 이르는 마을 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꼬막 치패를 뿌리고, 낙지 목장을 개설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민·관이 협업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실행 의제' 가운데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자발적 해양쓰레기 수거 운동을 포함시켜 이를 지원하고 있다. 또 목포 등 12개 연안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 바다환경지킴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각종 사회단체와 어업인 등 139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붐맞이 해양쓰레기 대청소를 해 184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연안 정화의 날과 연계해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민선7기 정책 아젠다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집중하겠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어업인들께서 쓰레기 발생 예방 노력과 수거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200kg 탑재 카고 드론 개발한다

### 정부 기술개발사업 공모 선정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반

광주시는 산업통상부가 공모한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탑재 중량 200kg급 카고 드론 기술 개발 사업'에 광주시와 LIG넥스원(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자동·원격비행이 가능한 최대속도 시

속 100km급, 탑재중량 200kg급의 드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2019년 8월 국방 드론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LIG넥스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제31보병사단 등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또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부, 모아소프트 등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카고 드론 시장은 특점 업체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성장 잠재력이 크며 5~10년 사이 상용화, 안정

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리튬 배터리 동력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소연료전지 활용분야를 중·대형 드론 분야까지 확대해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확보된 기술은 2040년까지 약 1700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산업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9일 롯데마트 직원이 전남도와 공동 기획 판매하는 '무안 햅양파'를 선보이고 있다. 무안 햅양파 100t은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112개 지점에서 할인가(3kg 3980원)에 판매된다. <롯데쇼핑 제공>

##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 로봇 해설사 등장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 로봇 해설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은 상설 전시실 안내 서비스를 해줄 '도슨트 로봇'을 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로봇이 도입되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맡았던 전시 안내를 하게 되며, 관람객은 개인 맞춤형 전시 안내 서비스를 받게 된다. 도슨트 로봇은 관람객의 성향과 국적을 파악해 대상에 맞는 최적의 관람 동선을 추천하거나 외

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발열체크와 방역기도 수행하게 된다.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스마트 국립 박물관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 등 2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박물관은 이날 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박물관은 광주역사와 남도 민속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진흥원은 콘텐츠가

## 내년부터 '도슨트 로봇' 가동 전시 안내·외국어 서비스 제공

공과 로봇 기술 분야 개발을 맡는다. 로봇은 안면인식,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시대 첨단기술을 적용한 상용 로봇에 무선이어폰, 배터리 교환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로봇은 오는 12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박물관 측은 로봇 운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문화향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우정청·롯데마트, 양파농가 돕기 나서

### 남도장터·쇼핑몰 등서 특판 행사

전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 롯데마트가 손잡고 양파농가를 돕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온·오프라인 특판 행사를 연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사는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와 '우체국쇼핑몰'(www.epost.go.kr)에서 양파 농가 돕기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와 '우체국쇼핑몰'(www.epost.go.kr)에서 진행된다. 특사 이즈 양파 5kg은 6900원, 10kg은 1만2600원에 무료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 특판은 전국 롯데마트 112개 지점에서

펼쳐진다. 양파 3kg을 3980원에 살 수 있다. 전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 롯데마트는 최근 조생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급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 등 이중고를 겪는 양파농가를 돕기 위해 특판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조사 결과 올해 초 양파는 1kg당 1900원대에 거래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조생양파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꺾였고 5월부터 하락폭이 급격히 커져 7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조생양파 6490t을 시장격리 했다. 이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중만생종 출하기인 6월 말에서 7월 초에 출하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전환 앞두고 직원 공채

### 경력 2명·신입 5명 블라인드 채용

전남복지재단(대표 신현숙)은 19일 "6월 말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확대 전환을 앞두고 직원 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경력직 사무 2급(팀장급) 2명과 신입 사무 6급 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형은 1차 서류, 2차 필

기, 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다. 전남복지재단(061-287-8122)에 전화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남복지재단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모든 전형 절차를 외부기관에 위탁해 성별이나 졸업 학교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추진한

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국공립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서비스기관의 경영, 노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개원은 전국 11번째로, 전남복지재단은 관련 조례 및 정관 개정 등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